

우리시대의 『출항』

신 광 인

I. 들어가기

버지니아 울프가 첫 작품 『출항』(*The Voyage Out*)을 출판한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여주인공 레이첼(Rachel Vinrace)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피어나지 못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유프로신(Euphrosyne)이라는 배를 타고 떠났지만 끝내 죽음을 맞았던 것이 한 세기가 지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한 세기동안 여성들은 작품 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였던 참정권을 얻었고, 레이첼의 약혼자인 테렌스(Terence Hewet)가 여섯 세대는 지나야 배출될 것이라 예견했던 여성 법조인들은(272) 이미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이제 『출항』이후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더 이상 레이첼과 같은 죽음을 맞게 되는 여성이 없는 것일까? 레이첼을 절망에 빠지게 했던 사회의 가부장적 속성은 충분히 해소되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전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현(現)시대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던 레이첼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 절망과 고통 앞에 새삼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레이첼이 느꼈을 그 절망과 무기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규모와 깊이는

더욱 커졌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대는 레이첼처럼 영국이라는 한 국가, 한 사회가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의 국경선을 넘나들며(transnational)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Cummins *et al.* 271).

과거에 유목민이 조금 더 좋은 목초지와 환경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것처럼 현대인들은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기회를 찾아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점차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어 오늘날 인도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후 홍콩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대의 디아스포라(diaspora)인 이들에게 더 이상 모국은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며, 그가 거쳐 온 모든 나라가 현재의 그를 형성하는 모국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현대인은 한 사회 내에서의 자아실현의 범위를 넘어, 서로 다른 여러 사회 내에서 자아를 어떻게 정립하고 구현해낼 지에 대한 더욱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현대인은 레이첼이 상대해야 했던 단일한 영국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이질적인 언어를 가진 여러 사회 앞에 마주 서야 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가 보편화된 지금은 여성의 참정권이나 여성 변호사 등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지표와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보다 많은 레이첼을 양산해낼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된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I can be m-m-myself” 75) 실현할 것을 기대하며 떠난 여행에서 레이첼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많은 이주자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에 처음 발을 들인 신참자로서 또한 새로운 사회의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중의 약자”의 모습(double minorities, Losey 635)으로 점점 사회의 주변으로 물러나 주변인이 되어 간다. 더욱이 여성 이주자들은 문화적,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채 가정 안에서만 지내게 되기도 한다. 레이첼이 리치몬드라는 소도시에서 숙모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와 교류가 없었던 것처럼 여성 이주자들은 사회에서 점점 그들의 목소리를 잃어 가는 것이다. 부푼 꿈을 안고 보다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난 새로운 사회에서 그들은 오히려 사회적 자아의 죽음을 맞게 되는 셈이다. 마치 영국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지만 결국 열병으로 죽고 마는 레이첼처럼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곳은 오히려 철저한 고립으로 그녀들을 사회적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심에는 언어가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이상의 의미로 그녀들을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한다.

II. 그들(만)의 언어

그렇다면 언어는 무엇일까? 언어가 가지는 어떠한 사회적 의미로 인해서 그것은 이주자들, 특히 여성이주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것일까? 언어는 바로 한 사회의 권력을 형성하며 유지하는 가장 큰 기제이다. 사회는 언어를 통해서 권력을 형성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또한 후대에 세습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 어휘와 구조를 익히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의 권력에 다가가는 발판을 놓는 “투자(investment)”의 행위이며(Norton and Toohey 312) 그러므로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된다. 권력의 폐쇄적 속성상 그것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의 것이며 사회적 약자, 주변인에게는 쉽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상류계층을 형성하는 전문직으로 통상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의 직종은 그들만의 용어와 언어사용법이 따로 있다(Duff 2008; Morita 2004; Zappa-Hollman 2007).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같은 언어권의 사람도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정도이다(Duff 266). ‘그들만의 언어’를 통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그들만의 영역이 구축되고, 그 좁고 선택받은 그들의 영역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 권력은 다시 언어교육을 통하여 후대에 세습된다. 연구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소위 상류계층 직업군의 자녀들은 중소시민의 자녀들과 사용하는 언어구사의 유형이 다르다. 중소시민의 자녀들이 “직접적인 대화체를 즐겨 사용하고 감정적이나 행동지향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면 상류계층의 자녀들은 대화체가 아니라 인지적이며 논리적이고 자기를 설명하고 주장하는 논쟁적 언어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Gee 416).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언어는 권력을 생성해내는 근원이자 곧 그 권력이 되어버리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마치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며 살지만 결국 그 언어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Humans live with language and through language. Ochs & Schieffelin, Baquedano-Lopez & Kattan 161 재인용) 권력도 언어를 출발점으로 생성되지만 결국 그 언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옥스퍼드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본(Gibbon)을 읽고 그 언어가 만들어 놓은 선택받은 영역에 들어간 허스트(John Hirst)에게는 그 기본서조차 읽지 않은 레이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사람이며, 기본(Gibbon)이 무엇인지도 처음 들은 레이첼에게 그것은 허스트가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비치게 된다.

또한 레이첼은 남성의 본성과 경험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는 허스트의 가정이 왜 그녀를 그토록 짜증나게 하고 끔찍하게 하는 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마치 문이 그녀의 면전에서 쿵 닫힌 것 같았다. (142)

결국 기본(Gibbon)은 레이첼과 허스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레이첼이 허스트와 테렌스가 속한 옥스퍼드의 세계로 가서 그들의 권력을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본(Gibbon)이라는 문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작품 내에서 레이첼이 말을 더듬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설정이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이어지고 여성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녀들에게 부과된 역할만이 중시되는 가부장적 영국 사회의 언어는 이미 레이첼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허스트와 테렌스를 포함한 옥스퍼드의 언어이고 10개의 배를 거느리고 세계를 다니며 사업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는 아버지 윌로우비(Willoughby)의 언어이며 그의 생애 동안 여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정치인 댈러웨이(Dalloway)의 언어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언어로 기성 권력을 구축해 놓았고 레이첼은 그 경계선 밖에 있다. 그러므로 그 언어는 레이첼에게 쉽게 문을 열지 않는 낯선 언어이고, 따라서 그녀는 주저하며 말을 더듬는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말할 때 망설이는 것과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녀를 나이에 비해 더욱 무능하게 보이게 했다. (13)

오히려 레이첼의 언어는 그녀가 피아노로 표현하는 음악이며 그 속에서 그녀는 자유롭다. 또한 음악의 세계에서 그녀는 언어의 세계에서 보이는 미숙함과 달리 여러 다른 장르의 음악을 조합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멋진 춤곡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유능하다. 그러므로 24살의 나이에도 말을 더듬는 미

숙한 레이첼은 음악의 세계에는 없다. 대신 서른이 넘어서야 치는 곡을 소화해내는 유능한 24살의 피아니스트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자신의 세계에서는 유능한 레이첼이 속할 수 없었던 곳은 단지 허스트가 있는 언어의 세계, 옥스퍼드의 세계, 주변인에게 문을 열지 않는 그 폐쇄적 권력의 세계,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우월감의 세계이다. 허스트는 그가 습득한 언어로 우월감을 얻고 그것을 표현해서 레이첼에게 상처를 주지만 레이첼은 그녀의 언어인 음악으로 그 우월감을 만들어 내지도 또 표현하지도 못한다. 블레인(Blain)이 지적한 것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보편화된 언어(age-old common language)는 남성들에게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240). 그러므로 테렌스에게는 음악보다는 언어를 매개로한 소설이 더 매력적이고 아버지 월로우비의 언어표현은 늘 당당한 강요하는 어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언어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 세계에 속하지 못한 레이첼만이 말을 더듬고, 침묵하고, 주저할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레이첼이 테렌스와 약혼한 이후에 나누는 대화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을 벗어나 남미의 산타 마리나(Santa Marina)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자아를 정립해가는 레이첼에게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그녀의 언어구사에 있다.

어쩔 수 없네요. 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남미에서도 최고의 음악가인데 당신이 이 방에 있으면서 나를 너무나 방해하기 때문에 음 하나도 칠 수가 없어요. (276)

자신을 최고의 음악가라고 소개하는 자신감에 찬 언어구사는 레이첼에게는 찾을 수 없던 모습이다. 허스트가 그녀에게 도대체 지각은 있느냐고 비난했을 때에도 레이첼은 한마디 대꾸도하지 못했다. 그저 속으로 삭이며 한참이 지나서야 허스트의 무례함을 “여자와 남자는 서로 이해할 수 없으니 함께 살아서는 안된다”(142)라고 돌려서 비난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레이첼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함께 연주를 방해하는 테렌스에게 그녀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레이첼의 자아가 확고해졌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자신을 배제시키는 테렌스와 허스트로 대표되는 언어의 세계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레이첼은 말을 더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오히려 레이첼의 언어구사는

이제 기발함마저 띠게 된다.

그들은 바위와 그들 아래에 바다가 있다고 상상하며 주도권을 얻기 위한 싸움을 했다. 마침내 레이첼은 바닥에 쓰러졌고 숨을 몰아쉬며 테렌스에게 자비를 구했다. “나는 인어예요!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게임은 끝난 거지요.” (282)

테렌스와 벌이는 주도권 싸움에서 가상의 바닷가 절벽에서 밀려 바다 속으로 떨어질 때, 그녀는 자신이 인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수영할 수 있기에 게임은 끝났다고 한다. 테렌스는 비록 힘으로 밀고 주도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레이첼은 새로운 곳에서 수영을 하며 그가 잡았다고 여기는 주도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그만큼 그녀의 자아는 단단해지고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비롯한 테렌스, 허스트 등이 쥐고 있는 언어의 세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언어의 이질성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지도 않고 단어를 잘못 끝어다 쓰지도 않는다. 대신 그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언어 세계가 가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그 폐쇄적 권력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레이첼의 이러한 기발함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절벽에서 밀려 바다에 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지금 언어의 세계에 있지 않다. 바다에 떨어져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있다. 결국 그녀는 ‘그들만’의 세계에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자신의 글이 잘 써질 수 있도록 조용한 배경음악만 연주하라는 약혼자 테렌스의 집요한 언어에 밀려, 레이첼은 절벽 아래 바다에 떨어져 있다. 영국사회의 언어는 여전히 그녀에게 문을 활짝 개방한 언어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계속해서 더 높은 장벽을 만들어 그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결국 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레이첼의 죽음은 “사회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해서 오는 죽음”(Froula 85)이라는 해석은 매우 타당하다. 레이첼은 결국 권력을 만들고 그 스스로 폐쇄적 권력이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는 문을 열지 않고 밀어내는 그 시대의 언어에 의해 죽은 것이다.

III. 우리시대의 레이첼

1. 나라 밖의 레이첼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레이첼이 있다. 단지 그 배경이 영국이라는 단일 사회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사회로 확대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녀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시대의 레이첼들은 『출항』의 레이첼과 달리 완전히 다른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한다는 어려움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현대 레이첼들의 열망은 생소한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그리고 이미 그 언어가 한 사회 내에서 형성해놓은 확고한 권력의 폐쇄성에 부딪혀 좌절하고 만다. 많은 여성 이주자들은 레이첼과 같이 새로운 사회의 바닷가 언어 절벽에서 밀려 바다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가정을 가진 여성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두며 그들의 기회를 위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그녀들은 가정 내에서만 머물며 간단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까지 아이들과 남편의 도움을 받거나, 언어활동이 거의 필요 없는 청소와 같은 반복적인 육체노동과 같은 사회 활동만 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의 성적 역할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이주자들은 제 2의 언어 습득과정에서도 성역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Menard-Warwick 302; Gordon 233). 아이 때문에 무료로 실시되는 언어교육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남편처럼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그녀들은 여러 겹으로 쌓인 난관 안에서 점차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침묵하게 된다. 레이첼이 영국사회에서, 아버지 앞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여성 이주자들도 새로운 사회에서 말을 잃는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사회 내에서의 그녀들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간다.

여성 이주자들의 침묵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그녀들은 심지어 학교 내에서조차 입을 열지 않는다. 그 학교가 그 사회의 주류적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이주자들이 섞여 있는 언어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녀들에게는 침묵이 이미 일상화 되어 있다. 강한 자기 부정처럼 그녀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그

사회 활동에 동참시키려 하지 않는다. 한 교실에서 47%나 차지하면서도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8%에도 미치지 않는다(Losey 644). 그것도 주로 말하도록 지목을 받았을 때이다. 마치 레이첼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희망하는 바를 침묵으로 대하는 것처럼(14), 여성이주자들은 그들을 침묵하게 한 그 사회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여성 이주자들이 입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공식적인 수업에서가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같은 처지의 여성 이주자들이 모여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오히려 남성이주자들이나 그 사회의 주류 남·여 학생들이 입을 열지 않지만 여성 이주자들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눈다. “오히려 그녀들은 수업시간의 내용보다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와가며 더 많은 것을 배운다”(Losey 645). 헬렌(Helen)이 레이첼을 도와 그녀의 자아실현을 돕고자 말을 걸고 이끌어 내려 했던 것처럼(Galbiati and Harris 70), 여성 이주자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고 돕고 있다. 이들이 가지는 언어의 한계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는 유대감을 만들고 “여성들의 작은 마술 정원”(magical garden of women, Hawkes 32)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교실이라는 공식적인 사회에는 침묵으로 반응하지만 여성들만의 작은 모임에서는 입을 열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울프의 작품들이 “당대의 문화적 제약에 침묵의 내러티브를 대비시키고 그 침묵이 가지는 저항성에 주목했다”는 로렌스(Laurence 1)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 레이첼이 당대의 사회에 침묵으로 저항했던 것처럼 여성 이주자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결코 그 사회의 주류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침묵으로 저항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저항이 레이첼의 경우와 같이 그들이 맞서고 있는 사회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그녀들이 맞서기에는 이미 그 새로운 사회에 형성된 ‘그들만의’ 언어와 그 언어를 통해 생성된 ‘그들만의’ 권력이 너무나 확고하다. 오히려 결혼한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그 권력의 세습에서 밀려나 떠들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녀들의 자녀들도 그 사회의 언어세계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두꺼운 장벽, 언어가 이루어 놓은 그 확고한 기성 권력의 벽을 넘어서는 데는 그녀나 그 자녀들이나 모두 한계가 있다(Gunderson 8).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여성 이주자들은 더욱 안으로 침잠하고 말을 잃어 가

게 된다.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회에서, 그들은 목소리를 잃고 점점 바다 같은 침묵 속으로 빠져든다. 새로운 자아실현을 꿈꾸며 선택한 사회는 그들이 떠나온 사회 보다 더욱 폐쇄적이며 그들에게 주변에 남아 있기를 강요하는 사회이다. 약 혼자 테렌스, 아버지 윌로우비가 모두 자신이 중심이고 레이첼은 그 주변에 돕는 자로 남아있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또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사회는 여성 이주자들을 절대로 그 경계 안으로 성큼 받아들이지 않고 타자로 남아있게 한다. 그녀들은 그 폐쇄성에 절망하며 바다라는 사회적자아의 죽음을 선택한다. 그녀들은 목소리를 잃고 “바다 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다”(322). 그녀들의 노력과 의지로 넘어설 수 없었던 그 바닷가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 레이첼처럼 바다 깊은 곳으로 침잠하고 만 것이다.

2. 나라 안의 레이첼들

나라 안의 레이첼들은 더욱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 결혼을 통해서, 혹은 직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찾아 우리나라에 온 여성 이주자들은 나라 밖의 레이첼들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 있다. 오히려 그녀들은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더욱 고통 받고 있다.

먼저 여성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직업의 분류를 보면 우리는 여성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성 이주자들의 직업군으로는 산업연수생, 예술홍행, 그리고 결혼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술홍행이나 결혼 등과 같이 여성의 성을 담보로 입국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여성입국자의 75%를 차지한다(이수자 200). 처음부터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의 필요에 의해 욕망의 타자로 입국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입국 이후 그들은 타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우리 사회 남성의 가치를 배가시키고 실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 이주자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후대를 이어지게 하는 성의 역할로만 평가받는 것이다. 마치 레이첼이 남성을 돕는 여성의 성 역할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주 여성들은 사회 내에서 그 존재로서가 아니라 역할로만 여겨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들은 침묵으로나마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말’하지 않아

도 되는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습득 결과는 그녀들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결혼을 해서 3-6세의 자녀를 둔 이주 여성들의 평균 한국어 활용능력은 겨우 4-5세에 해당한다고 한다(최현옥·황보명 324). 그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한 것이 단지 성역할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여성 이주자들이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며 자아를 펼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너무 먼 이야기이다. 각기 자기 나라에서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 이주자들이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우리나라에서 침묵하는 존재, 말 못하는 존재로 철저히 배제되고 주변화 되어 살아간다.

그녀들은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박탈당한 채 대상(object)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정치인 델러웨이 눈에 레이첼이 욕망의 대상으로 비쳐진 것처럼 우리나라에 온 여성 이주자들은 철저히 물화된 존재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에 침묵으로 저항하기보다 아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레이첼이나 나라 밖의 여성이주자들과 달리 새로운 사회의 언어와 그것이 구축해놓은 권력인 바닷가 바위 절벽에서 보지도 못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바다 안에 웅크리고 있기만을 강요받는, 언어의 세계 밖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바다 밖으로 나올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는 이미 존재가 없는 자들이다.

여성 이주자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아이들의 학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많은 이주 여성 가정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학업 성취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업에 흥미를 잃은 자녀들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9.4%, 중학교에서는 17.5%가 학교를 그만둔다(오성배 5). 사회의 상류계층이 그들의 특수한 언어 사용을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주 여성의 주변성이 그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그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마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몹시 어려운 것처럼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와 합법적(legitimate)인 일원이 되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그 배타성이 오늘도 나라 안의 많은 레이첼들을 절망하게 한다. 나라 안에도 나라 밖처럼 너무 많은 현대의 레이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IV. 가능성: 작은 언어

그렇다면 현대의 레이첼들이 새로운 사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가 쌓아 놓은 사회의 기성 권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일까? 현대의 많은 레이첼들을 바다에서 끌어내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어의 세계로 옮길 방법은 없을까? 꼭 남성들이 세습하며 이룩한 그 권력의 가부장적 언어의 세계가 아니어도 그녀들이 생생히 목소리를 내게 하는 대안은 없을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울프의 “작은 언어”(the little languag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울프는 전통적인 언어를 남성적, 가부장적 언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 가부장적 언어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나누고, ‘우리’ 보다는 끊임 없이 ‘나’를 주장하며 다른 삶의 주체를 소외시키고 배제한다(Eisenberg 254). 그러므로 그것은 계속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상처 입히며 소통보다는 벽을 만드는 언어이다. 또한 그 언어는 가부장적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철저히 주변을 타자화하며 결국 가부장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지켜나가는 “순수하지 않은 매개체”이다(Eisenberg 254). 그러므로 이러한 가부장적 언어를 통해서 삶의 주체의 다양한 경험과 모습들을 충실히 담아 낼 수는 없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테렌스가 쓰고자 했던 침묵에 관한 소설은 시작부터 그의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옥스퍼드라는 대학을 나오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도 여행을 다니며 풍족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영국 사회 중심에 있는 테렌스의 언어는 이미 너무나 ‘안’의 언어여서 가부장적 언어에 의해 배제되고 걸러진 다양한 ‘밖’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을 충실히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나’ 보다는 ‘우리’를 중시하고 나뉜 것을 통합하고 상처를 회복해서 삶에 통합의 비전을 이루어 내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반드시 인간의 음성언어가 아니어도 삶을 알뜰히 담아내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 울프의 “작은 언어”이다. 그러므로 울프의 “작은 언어”에는 사람의 언어 이외에 동물의 소리, 자연의 소리, 침묵, 노래, 심지어 자연풍경과 몸짓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사람의 언어도 가부장적 언어의 세계에서는 하찮고 미숙하게 여기지는 짧은 문장, 미처 맺지 못한 문장, 단어 한 두 마디로 이루어지는 문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작은 언어”는 가부장적 언어가 놓치는 것들, 배제하는

것들, 타자화 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하여 언어로 규정하고 그 통합적 언어를 통해 삶의 선택받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담아내고자 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작은 언어”에서 본다면 레이첼이 말을 더듬거나 어휘를 잘못 선택하고 말할 때 주저하는 것 등이 모두 미숙한 것으로 배제될 것이 아니라 그 만의 정당성을 가진 바른 언어활동이 된다. 또한 이 “작은 언어”에서는 남성들이 토론하는 정치, 예술, 사업 등의 주제가 레이첼이 보이는 침묵이나 피아노 음악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음악도 명백히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은 언어”는 나뉘고 서열 매기는 가부장적 언어가 가지지 못하는 포용성과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그것은 가부장적 언어에 의해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감싸 안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나라 밖의 레이첼들이 휴식 시간에 같은 여성 이주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 배우고 돕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업시간에는 가부장적 언어가 그녀들을 침묵하게 하지만, 쉬는 시간은 그녀들의 “작은 언어”가 통용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는 침묵이나 어법이 틀린 표현법, 심지어 미소, 몸짓까지 모두 언어로 존중받는 시간이고 열등한 것으로 판단 받지 않는 시간이다. 또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 이주자들이 있다. 사회의 가부장적 언어 권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자체가 “작은 언어”이다. 결국 쉬는 시간은 “작은 언어”들이 “작은 언어”로 이야기 하는 시간인 셈이다. 그러므로 레이첼이 바다에 빠지는 순간, 수영하는 언어의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처럼, 배제되고 타자화된 “작은 언어”인 여성 이주자들은 “작은 언어”로 이야기 할 때 자유로움을 느끼고 또 살아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은 언어”는 여성 이주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은 그녀들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고 인어처럼 힘차게 활동하는 공간이며 또한 자기를 표현하는 공간이다. 레이첼이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유능했던 만큼 여성 이주자들은 그 “작은 언어”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며 누구보다 유능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이주자들이 꿈꾸는 자아실현은 이 “작은 언어”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녀들이 주변적 존재에서 벗어나 당당히 그녀들을 타자화 시키고 주변화 하는 가부장적 언어와 그 기성 권력에 맞서 자신을 드러내 펼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언어”를 매개로 했을 때이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유목민의 시대에 여러 장소에서 힘겹게 레이첼들로 살아가는 많은 이주여성들을 무력한 주변적 침묵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작은 언어”들의 활성화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언어”들 안에 그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되돌려 줄 바다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V. 맺기

헬러(Heller)는 세계를 다니며 여러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제 언어는 그 자아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존재론적이고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 것 저 것 바꾸어 쓸 수 있는 하나의 상품(commodity 47)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능한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는 오늘날의 세계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언어 자본(linguistic capital)을 많이 성취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세계시민의 삶을 살 가능성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한다. 국경을 넘는 잦은 이주와 그 과정에서의 언어습득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태어난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주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너무 많은 노력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히 어휘와 구조를 가진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사회의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언어 뒤에는 그 언어를 받치고 있는 사회의 기성 권력이 있고 이 권력은 다시 언어 교육을 통해 세습되며 더욱 공고해진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이 곧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어는 스스로와 자신이 쌓아 놓은 권력의 그 문을 아무에게나 열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히 선택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문을 열고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이다. 그것은 자기가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추어 주변을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주변과 중심을 정하며 그 서열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통합하는 대신 나누고 배제시키고 그 결과 생겨난 주변적인 존재들을 침묵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사회로의 이주가 활발한 현시대는 사회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해 끝내 죽음에 이르는 많은 레이첼들이 생겨날 수 있게 하는 어려운 시대이다. 새로운 사회의 언어가 그리고 기성권력이 그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적 존재로, 주변적 역할로만 남아있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나라 밖의 레이첼들이나 나라 안의 레이첼들은 따라서 그 사회에서는 누구도 선뜻 떠맡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 그녀들이 보이는 공통된 현상은 침묵이고 침묵에 따른 자기 부정으로 사회적 자아를 침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시대의 많은 레이첼들에게 그녀들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울프가 발견하고 명명해 놓은 “작은 언어”를 통해서이다. 나누고 등급매기고 그녀들을 주변적 존재로 묶어 두고자 하는 기존 가부장적 언어의 가치가 부정되는 “작은 언어”를 통해서 그녀들의 자아를 회복시키고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레이첼이 바다에서 자유로운 인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많은 레이첼들도 그녀들의 불품없는 언어구사, 한숨, 눈물, 미소, 몸짓 모두를 존중하고 언어로 받아들여 주는 “작은 언어”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목소리를 회복하고 스스로 부정해버린 사회적 자아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시대가 진정 국경선을 넘나들며 살아야하는 신 유목민의 시대라면 어느 사회에서나 이 “작은 언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많은 현 시대의 레이첼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진정한 의미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첼 같이 그녀들이 죽음을 맞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작은 언어”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 하여금 많은 현대의 레이첼들을 품어 치유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그녀들을 자기부정의 깊은 바다에서 끌어내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우리시대의 출항에는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안양대)

인용문헌

- 오성배.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학 연구』 12.1 (2007): 1-15.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 사회학』 38.2 (2004): 189-219.
- 황보명 · 최현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이론과 실천』 10.4 (2009): 315-329.
- Baquedano-Lopez, Patricia and Shlomy Kattan. “Language Socialization in School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8. Ed. P.A. Duff and N. H. Hornberger, 2008. 161-173.
- Blain, Virginia. “Narrative Voice and the Female Perspective in *The Voyage Out*.” *Modern Critical Views: Virginia Woolf*.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231-241.
- Cummins, J. et al. “Affirming Plural Belonging: Building on Students’ Family-based Cultural and Linguistic Capital through Multiliteracies Pedagogy.”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8.3(2008): 269-294.
- Duff, Patricia. “Language Socialization, Higher education, and Work.”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8. Ed. P. A. Duff and N. H. Hornberger, 2008. 257-270.
- Eisenberg, Nora. “Virginia Woolf’s Last Words on Words: *Between the Acts* and ‘Anon.’” *New Feminist Essays on Virginia Woolf*. Ed. Jane Marcus. Lincoln: Nebraska UP, 1981. 253-267.
- Froula, Christine. “Out of the Chrysalis: Female Initiation and Female Authority in Virginia Woolf’s *The Voyage Out*.”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5. 1 (1986): 63-90.
- Galbiati, A. Maria and Peter J. Harris. “Reality and language in *The Voyage Out*.” *Language and Culture* 32.1 (2010): 67-72.
- Gee, P. James. “Teenagers in New Times: A New Literary Studie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3.5 (2000): 412-420.

- Gordon, Darly. "Gendered Second Language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8. Ed. P.A. Duff and N. H. Hornberger, 2008. 231-242.
- Gunderson, Lee. "But She speaks English." *Language and Literacy in Schools*. Ed. Robert T. Jimenez and Valerie Ooka Pang. London: Praeger Perspectives, 2006. 1-20.
- Hawkes, Ellen. "Woolf's 'Magical Garden of Women.'" *New Feminist Essays on Virginia Woolf*. Ed. Jane Marcus. Lincoln: Nebraska UP, 1981. 31-60.
- Heller, Monica. "Globalization and the Commodification of Bilingualism in Canada." *Globalization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Routledge, 2001. 47-63.
- Laurence, Patricia. "The Reading of Silence." *Virginia Woolf in the English Tradition*. Ed. Laurence Patricia. Stanford: Stanford UP, 1991: 1-12.
- Losey, M. Kay. "Gender and Ethnicity as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Verbal Skills in Bilingual Mexican American Women." *Tesol Quarterly* 29.4 (Winter 1995): 635-661.
- Menard-Warwick, Julia. "'I Always Had the desire to Progress a Little': Gendered Narratives of Immigrant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3.4 (2004): 295-311.
- Morita, Noriko. "Negotiating Participation and Identity in Second Language Academic Communities." *Tesol Quarterly* 38.4 (Winter 2004): 573-603.
- Norton, Bonny and Kelleen Toohey. "Changing Perspectives on Good Language Learners." *Tesol Quarterly* 35.2 (Summer 2001): 307-322.
- Woolf, Virginia. *The Voyage Out*. London: Penguin Books, 1992.
- Zappa-Hollman, Sandra. "Academic Presentations across Post-secondary Contexts: The Discourse Socialization of Non-native English Speakers."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3.4 (June 2007): 455-485.

Abstract*The Voyage Out* in Our Age

Kwangin Shin

Almost 100 hundred years have passed after *The Voyage Out* was published and Rachel, the female character of it, died due to the patriarchal society. During the past years, suffrage and professions like lawyer were open to women. However, the patriarchal society and its language are not changed. Rather, the situation gets worse because ‘the voyage out’ for self-realization of modern times has to be done on the global scale. As a result, this age produces many modern Rachels—female immigrants—who suffer from new society’s different languages and its impenetrable patriarchal power.

In the new society, female immigrants are marginalized and so, lose their voices. They are forced to remain as ‘Others’ in the periphery of society and are silenced. Though they came to the new society to realize their selves, the result is turned out to be opposite. As a result, they locked themselves in themselves more strongly and don’t try to get out of self-negation.

To help them break out of that situation, “the little language” of Woolf is needed. As we know, the little language is composed of “broken words, unfinished sentences, cries, gestures, and even nature.” It embraces all the existences which were hurt and discarded by the patriarchal language. Accordingly, in “little language,” female immigrants become full of life as Rachel became a lively mermaid in the sea. Based on thi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ittle language” again and acknowledge its value to heal the female immigrants’ lives in this new nomadic age.

■ **Key words** : Patriarchal society and language, “the little language,” Modern Rachels, self-realization, silence, marginalization, Others
(가부장적 사회와 언어, “작은 언어,” 현대의 레이첼들, 자아실현, 침묵, 주변화, 타자)

논문접수: 2010년 5월 10일

논문심사: 2010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0일